

賀 序

天鳳 石琮顯 教授님께서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華甲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하고, 교수님의 學德을 기리고자 그 紀念論文集을 발간함은 韓國公法學界에 또 하나의 金字塔를 쌓는다는 큰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祝福의 뜻을 전달합니다.

石琮顯 教授님은 일찍이 獨逸에 유학하여 1978년 10월 국립 슈파이어(Speyer)대학에서 法學博士(行政法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그 해 3월 1일부터 檀國大學校 法科大學 教授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공법학계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학자이었습니다. 법학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공부한 공법이론을 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국내에 활발히 소개·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법학 중 행정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土地公法學에 대한 학문적 열정은 대단하여 이 분야의 開拓者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石教授님과 本人과의 인연도 25년간 학문적으로 맺어졌는데, 천학 비재한 본인이 주로 土地公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石教授님의 저서와 논문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1994년 8월 20일 석교수님 주도로 韓國土地公法學會를 창립하여 石琮顯 教授님은 현재까지 會長職을 맡고 본인은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그 學會는 오늘날 社團法人化되었고 학회지 「土地公法研究」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서 지금까지 第18輯을 발행하여 한국의 대표적 학회로 발전하였는바, 이는 石琮顯 會長님의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보아도 되겠습니다.

石教授님은 열성적인 연구활동의 결과 1986년 8월 17일 한국공법학회 제1회 학술장려상을 수상하셨으며, 「行政法原論」·「一般行政法(上)」·「一般行政法(下)」·「行政法講義 I」·「行政法講義 II」·「行政法演習」·「土地公法講義」·「新土地公法論」·「土地行政法論」·「建築法論」 등 많은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동학 또는 후학들의 행정법 및 토지공법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巨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저서들의 내용은 아주 충실하고 논리적이며, 여러차례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군법무관시험·변리사시험·관세사시험·감정평가사시험 등의 위원으로서 참여하셨기에 많은 법학도들에게 읽혀져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법학공부를 한 적이 있는 분은 석교수님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해도 그 함자는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石琮顯 教授님은 韓國 法學界에 그 누구보다도 널리 알려진 學者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 회장 및 고문·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으로 정열적인 학회활동을 하여오셨고, 특히 한국공법학회 회장 재임시에는 학회지 「公法研究」에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고 많은 회원들에게 연구결과물의 발표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획기적인 공으로 평가할 만하고, 「土地公法研究」도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石教授님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환경부 환경법령심의회 위원·건설교통부 국토정비기획단 자문위원회 위원·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위원회 위원·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각종 委員會의 委員으로 참여하여 행정법 이론과 행정실무를 접목시키는 데에도 크게 공헌함으로써 實事求是를 지향하는 학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石教授님은 1979년 3월 1일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

한 이래 지금까지 보직교수로서 법학과 학과장·대학원 주임교수·법학연구소 소장·법과대학 학장·노사관계대학원 원장·행정법무대학원 원장 등의 대학행정을 맡아 檀國大學校 發展에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本人이 알고 있는 人間 石琮顯 教授님은 가슴이 대단히 따듯하고, 모든 일에 열정을 바치는 매우 유능하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유별하여 친자녀처럼 키워주는 이 시대의 참다운 스승이십니다. 우리 學界에 教授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오니 지금처럼 靑年같은 健康을 오랫동안 유지하시어 學問活動에도 계속 精進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天鳳 石琮顯 教授님의 학운의 지속과 가정의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2003年 9月 22日

韓國土地公法學會 副會長
韓國不動產法學會 會長
全南道立 南道大學 學長
朴 坪 準